

문체부-출판문화산업진흥원 '책나눔 위원회' 3월의 추천도서

'붕대 감기' · '사회성이 고민입니다' 등 7종

〈윤이형〉

〈장대익〉

송효정 '나를 보라, 있는 그대로'
강윤중 '이상한 나라의 학교'
신미경 '혼자의 가정식' 등 선정

이상문학상 사태에 절필 선언을 했던 윤이형 작가의 '붕대 감기'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장대익 교수의 '사회성이 고민입니다' 등 7종의 도서가 3월의 추천도서로 뽑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이) 운영하는 '책나눔 위원회'는 4일 '붕대 감기'(문학)와 '사회성이 고민입니다'(자연과학)를 포함해 ▲인문예술분야 나를 보라, 있는 그대로(송효정 외) ▲사회과학분야 이상한 나라의 학교(강윤중 외) ▲실용일반분야 혼자의 가정식(신미경) ▲그림책·동화분야 곰팡이 보고서(박효미) ▲청소년분야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권혜선 외) 등 총 7종을 3월의 추천도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여울 작가 겸 문학평론가는 윤이형 작가의 '붕대감기'를 "여성들 간의 우정과 연대를 그린 작품"이라고 소개하며 "그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한 여성성 자체의 무한한 긍정의 사유를



책나눔 위원회가 추천한 '3월 추천도서'

〈사진=각 서점 제공〉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평했다. 송기원 교수는 장대익 작가의 '사회성이 고민입니다'에 대해 "인간의 본성을 과학으로 전부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진화학자가 그 예시

를 보여준 책"이라며 "SNS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느끼는 관계의 공허함, 외로움, 인간과 AI와의 관계 등에 대한 고민을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방역·휴관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될 때까지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을 휴관하고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27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선제 대응 일환으로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을 임시 휴관했으며,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관 주변에 대한 수시 방역활동을 진행했다.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전승 기반 마련을 위해 2016년 개관되어 현재 이리향재출품류보존회(11-3호)와 이리농악보존회(제83-2호)가 입주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실내공연장, 악기보관실, 음향장비실, 다목적소공연장, 세미나실 등이 있다.

이번 조치는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들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앞으로 무형문화재보유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이번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하도록 할 것이며"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뉴스

/익산=장영원 기자

예배학자 "가정예배는 장소 일시 변경... 제2 신천지 경계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교회가 주일 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학의 대가'로 통하는 학자가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정장복 한일장신대 명예총장은 2일 한국기독교독공보에 특기고한 글 '예배 없는 예배당을 보면서'를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는 찬반의 흑백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과 환경에 따라 개교회가 적절한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과거 피난길의 예배를 상기하면서 예배신학자로서 조심스러운 제안을 해 받는다. 정 명예총장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이 교회의 예배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일시적 변경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고 전했다.

"환자라든지 불가피한 성도들을 위해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범주 안에서 한, 두 주일 함께 한다는 개념을 세운다는 것"이라는 얘기도.

정장복 한일장신대 명예총장, 칼럼 기고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순서로 예배하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경청하는 예배형태를 응급조치로 여기도록 하고, 목회자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예배와 설교준비를 해 방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목회자는 이 폭풍이 지날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텅 비어있는 예배당에 엎드려 통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도 덧붙였다.

IT 기기를 사용해 언제 어디서나 사공간을 초월해 자유롭게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신무교회주의' 등이 합점이 될 수는 있다. 한편에서는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죽으면 그것은 곧 순교'라는 주장을 펴면서 예배당에서 예배와 각종 모임의 고수를 외치기도 한다.

하지만 정 명예총장은 "지금의 현상은 전쟁터에서 날아온 총탄을 피해야 하는 절박한 환경이다. 이 때를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다가 제2의 신천지 모양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크게 잃게 되며,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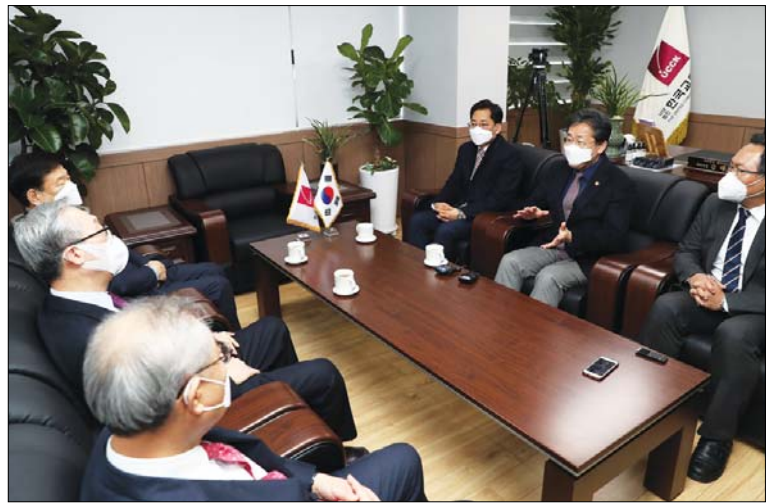
전한 예배의 회복에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2주간의 '잠시 멈춤'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NCCK는 "생명과 안전이 교회의 최우선적 관심사가 돼야 한다. 물론 종교적 예식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일은 소중하지만 이로 인해 공동체를 더욱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가슴이 창조세계와 공동체를 향한 책임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교회이듯 온라인에서도 교회"라고 덧붙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의 교단이 소속된 NCCK는 15일까지 모든 집회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종교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온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3일 종교계에 집회 자제를 다시 호소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을 만나 코로나19 관련 개신교계 대응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날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의 중대한 고비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당분간 종교집

회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종교계의 신중한 판단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